

“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 국가정책과 법령을 알리는 법제처 최초의 공식 메신저 100명 활동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책 서포터즈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활동을 시작하는 정책 서포터즈들에게는 “법령을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령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면서, “많은 국민이 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열정적 메신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는 ‘새령이의 길터뷰’, ‘나의 ○○○ 새령이’(쇼츠 드라마) 등 대표 캐릭터 ‘새령이’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요 법제 정책을 친근감 있게 소개하고, 법령정보를 ‘헤이 법스비’, ‘법률이 보이는 라디오-법보라’ 등 체험형·드라마형 콘텐츠로 만들어 법제처 기관 유튜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법제처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은 법제처 유튜브(<http://www.youtube.com/moleg12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5년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안은경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황정순	(044-200-6512)





2025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새친구함

2025.2.11.(화) - 2.23.(일)



모집대상 및 인원

모집인원

00명

지원자격

-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고,
-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활동 기간

2025. 3. 1.(토) ~ 2025. 12. 31.(수)



주요 활동

유튜브, 블로그, SNS 등 커뮤니티 활용 홍보 및 확산

지원 및 혜택

- 위촉장, 활동 수료증, 서포터즈 기념품 및 우수활동 서포터즈 법제처장 표창 수여

접수방법

'네이버 폼' 인터넷 접수

<https://naver.me/GXABMSOU>



결과 발표(예정)

2025년 2월 28일(금) / 개별통보

